

6月5日(木)
1952年(昭和27年)
發行所
基督申報社
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2623番
編集兼發行人 吳久番
主筆 田榮澤

△ 일본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좋은 명치는 십자가의 기치로
 온 기독교인들에게 살아야 할
 △ 기독 공동인 신앙을
 얻는 합하여 될것임은
 의적과 싸우기 위하여는 단
 하나 될것이다.
 합하여 하나의 되자. 삼
 기치만에 합하여 하나의
 한족의 모든 교회여 하나
 되라. 세계 교회여 그리스
 에 하나이 되라.
 △ 한족민족이어 하나님중에
 아와 하나이되자. 세계인류
 하나님의 자로 하나이

한국, 당파, 신조가 만
 도 풍운을 일으키게 한
 성신강림절을 맞이하
 된 현세를 회해하며 호
 조과와 정의 성령이 차
 나남의 백성 위에 다시
 번 새들게 임하시기
 기도하라고 하는 바이
 다. 창조의 성령이 임하
 는 성신이며 임하시
 세 계교회의 장단
 두아 데라, 아메나코라
 에이벤트, 벤그라푸
 말크, 배그나—
 지오프리, 칸차—
 사라, 자코
 초조할 마려

『고 하였다. 사람의 영혼
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과
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 쫓은
『고 하였다. 사람의 영혼
있을 때
있을이가 없다.』 완
려움이
교회의
이였다.

는 인류에게 전하게하신 성
은 만유의 주라는 복음을
는 만유의 주라는 복음을

名古屋教會入堂

나코야교회 입당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十二月
부터 착공한 나코야교회당
五月에 준공되어 六月첫
일요일인 지난 일일에 입당예배를
하였다.

社 告

本社의 發展을爲하여
左와같

人 事

△朴永昌氏 (東京韓國YM
同總務) 六月三日公選爲
△사절牧師 (監理敎宣敎部
積滯在中이다가 지난
日釜山으로歸任
△매리, 처제嬢 (前梨大敎
지난六月一日離日歸國

望臺聲

△우리는 물론
신앙을 지키고
위하여 싸워야
진리가 아난것과
이 다른것과는
수없다.

작년에 미국서 트루먼
통령이 로마법왕에게 사절
낸것이 신교중에서 문제
고 이번엔 일본에서 『요코하마』
수상의 대표로 『마쓰다』

關西支社長 趙珪善
 記者金珠浩(西成教會執事)
 名古屋支局長 徐載熙(名古屋教會長老)
 岐阜縣支局長 徐永均(大恒教會執事)
 武庫川教會獻堂式 姜哲申報社

우리는 십자가의 기치를
 열거 하여야 되겠다. 기독교
 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할
 △ 그러나 공동한 신앙을
 여는 합하여야 될것이요.
 의제와 싸우기 위하여는 단
 여야 될것이다.
 합하여 하나가 되자. 십
 기치에 합하여 하나가
 한국의 모든 교회에 하나
 되라. 세계 교회에 그리스
 에 하나이 되라.
 △ 한국민족이여 하나님께
 아와 하나이 되자. 세계인류
 하나인 자로 하나가
 △ 세계교회로 하나가

고는 만유의 주라는 복음을
 모든 인류에게 전하게 하신 성
 령이었다.
 교회에 사람의 령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완
 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 쫓은
 다』고 하였다. 사람의 영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민족과
 나교와 교회 입당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十二月
 일부터 착공한 나교와 교회당
 은 五월에 준공되어 六월 첫
 주일인 지난 일일에 임당세배를
 드렸다.

△朴永昌氏 (東京韓國 Y M
 同總務) 六月三日 公로로 平壤
 △사설牧師 (監理敎宣敎部
 橫濱滞在中) 이다가 지난
 日釜山으로 歸任
 △메리 처치嬢 (前梨大敎
 지난 六月一日 離日 歸國

△우리는 물론
 신앙을 지지고
 위하여 사회야
 전리가 아닌 것과
 이 다는 것과는
 수없다.

人 事

望臺聲

本社の 發展을爲하여 左와 같
 支社支局을 設置하오니 地
 方讀者는 直接 連絡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社 告

本社内 發展을爲하여 左와 같
 支社支局을 設置하오니 地
 方讀者는 直接 連絡하여 주시
 기를 바랍니다.

한국, 당파, 신조가 만
 도 풍운을 일으키게 한
 성신강림절을 맞았기에
 된 현설을 회해하며 호
 조과와 정의 성령이 차
 나남의 백성 위에 다시 차
 번 새둘게 임하시기들
 기도하라고 하는바이다.
 창조의성령이 임하소
 하는 성신이여 임하소
 세 계교회의장단
 두아 데라, 아메나코라 스
 에이벤트, 벤그라푸
 말크, 배그나—
 지오푸리, 칸차—
 사랑, 자코
 초조할 마려

說教

信仰의 飛躍
(2)

(證言者の懷疑と超克)

神學博士 渡邊善太

太 11

파괴에 교회에서는 지식을
경하게 여겼다. 그러나 경하게
여길 지식과 경히 여길 수 없
는 지식이 있다. 예수물 더
짚이 알고저하는 것은 귀한
일이오 따라서 이러한 지식은
귀한것이다.

권력에는 성경의 역사적
연구가 발달하여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신앙의 그리스도요 역사적 그
리스도는 아니다. 신앙의 눈으
로만 볼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고로는 교회의 주성이 되었
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주의
가속 야고보는 그뒤에 차차
성신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물
믿게 된것이다. 우리가 역사적
으로 본다고 신앙적요소
를 제해버리면 나중에
남을아는 것이나
다름아날의 속을 알을려고
자부면기면 나중에 남을것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파괴에 이모양으로 십년동안신
학교수를 하였다. 고전 삼십

壇 論

教會與社會

牧師
嚴堯燮

이 같은 철자 업요성육사의	개입잡지 『교회와 사회의』 창간	사에서 전제한 것이다. 알친사	는 관서학원 신학부를 입학후	뜻밖이가 있어 카나나 토론후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후	전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운	을 개척하고있다.	교회는 사회에 있어서 정신	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중요	한 관련성을 역사적으로 가지	고있다. 토인비는 서양의 여러	이들은 나면서 기독교적인 때	을먹고 기독교적인 공기를 호	추한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서	양 사회의 정신생활은 기독교
정신을 토대로 이루어졌음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서양문화 아니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현대의 한국사회에	발전은 확실히 한국의 기독교	발전사와 함께 움직여 나갔던	것이다. 어느나라 사회문화사	모든지 교회와 사회가 청정한	때 문화의 건전성이 있었고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어 갔다	문화의 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현대를 가르쳐 세대의 위기라	부들은 전쟁이 피리들울고 일	아나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어 가는 정신적	인 또한 사회문화적인 위기가

누가 참친구인가?

『모자』 하었다	『아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것 그래서
『아버지』 할, 친하지요」	『친한 친구가 아름다라, 친한 친구가있 어떤 친구 친군

『모자』 하었다	『아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많은것 그래서
『아버지』 할, 친하지요」	『친한 친구가 아름다라, 친한 친구가있 어떤 친구 친군

어린이날에 피와눈물에

「어린이」날을 당하여 주일학교 교사된 자, 부모된 사람이 모든 생각할 것은 어린이의 영혼을 얼마나 깨끗하고 귀한가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깨끗 하고 아름답고 지극히 귀한 어린이를 지도하고 기르는 자에게는 얼마나 중한가 하

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로 하자.

어린이는 천사다. 주일께서 『내가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있는 자가 어린아 이와 같으니라』 하신 것은 그 영혼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마태 18장

이의 입장에서 타개할 운동에 힘하게 움직여야 할	이 우리교회에 부녀되어 생각한다. 오늘 두사람 모여 앉으면 우리민족	이 위기를 말하며 탄식한다. 사람들. 민족의 장래를	이 하기도 한다. 이러한 민족 하는 역사. 교회적 위기	이 이런 의미에서는 아니된다 본리되어서는	이 나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회가 서로 이해 하	이 와 사회가 서로 이해 하 생각지 않는 전연 무	이 도 그야말로 따로따로의 것 동하고 있는 것을 심하	이 한 다. 이러한 사회상을 다한 유감스럽다고 생	이 가 분란 아니라 사실은 민족 장래를 위하여 열렬한	
수 밖에는 위협한 현상이	사회 사상의 빈곤은 세계적 으로 느끼고 있는 커다란 사	대전이후 아무런 거처는 것 이 서구에 뛰어 들어왔다. 전	대전과 연결관계 하나이라는 전일갑과 승리의 기쁨은 사상	개인 같이보다 더욱 서구인에 배는 훨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구인에게는 사실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그 자체에 대한	심과 이해가 별로 없었기 때 문에 다만 소련을 승리의 우	받았으므로 생각하였던 것이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소련과 사상적으로 마조식하	서구로서는 점차적면으로 적면보다 사상적인 면에 커	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임의로 민주주의라는 것을

고 있고 있어 사회에 있어의 사실에 있어서는
사상으로서 사상계가 움직인 비약할
것이다. 이제에 있어서 더욱
이 커다란 동력은 기독교의
사상 수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번 대전이래 세계
교회 회의가 있을 때마다 빼어
놓지 않고 도의 문제에 또는 강
론 문제에서 나온 것은 사회와
세계의 무결성이었다. 더욱이
一九〇八년 암스터담 회의에서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
도 다 같이 기독교 정신에 합
치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후에 생기는 것은 문제는
그러면 기독교의 사회상은
무엇이냐는 단계를 자연히 올
려서야 하는 데 대한 대답
은 지금도 분명치 않다. 그것
기독교는 종교이기 때문이
다. 그러면서도 기독교 사상에
는 역시 사회 사상수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
유는 기독교인의 사회안에 살
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는
공사상전이 우려되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고민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기독교적 사회사
상수립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피로워하는 신을 소리와 원망
하며 실망하는 이 압록의 미
파대에서 우리는 산다. 우리의
사명을 산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우리는 겨우 존재 한다고 말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커다
란 의욕이 있다. 곧 진정한
사상적 기반 없이 무절제한
회를 바로 잡으며 무너진 지
도 바로 지으려는 의욕이다.
이 기반이란 교회이다. 이 반
면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

禮巡教會
— 湖 秋 —

禮巡教會
湖秋一

양성에 힘을 많이 쓰시는
다. 중심으로 처하심을
신호교회로 담임하신
(金瓊燦) 전도사를 마중
에서 만나서 그의 인도하
교회들 찾아가는 길에
사와같이 먼저 고영복

[illegible]

나의 마음이라는 말들에 예수님의 형상을 인식시켜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악마의 모양을 박혀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주일학교 선생이 교회에 일 끝나가서 한모퉁에서 경건한 제기도를 하고 있는것을 어런 학생이 본다면 「계시마네」 등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형상을 친히 보여주는 것이요, 그대로 하여금 기도와 경건성으로 배우게 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성전에서 선생 끼리 허물을 하며 떠돌고 있으면 불경건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더구나 서로 눈물을 흘리는 후한 꼴을 어느들예라도 보았을면 그 마음에 악마의 모양을 그려주는 것이다.

가들이나 악마가 어린이들을 괴리고 잡아먹으려는 환경속에 서 선생되자 부도된자가 악마를 (四면五탄에 계속)

의의 교회의 유색과 자당은 다. 이 교회와 유색과 자당은 성결학교, 중학교, 유치원등 유기관이 있는것이요 정도대학에서 연구하고있는 李熙東 李誥俊氏 같은 장대 우리의 보배가 되고 유능한 학자가 될 학도들이 있는것이다. 대가 들한잔을 때도 방금 성결학원한잔이 공부할 하고있는것이반가웠다.

이 교회 창립은 二十八전이고 주일성회는 평년 三백명이라고 한다.

神戶教會 五月九日 (金)
지난밤에 전독사막에서 쉬고 유장로와 같이 신호로 갔다. 모든 눈앞에 바다를 바라보며 높이 높이 산위에 별천지 같은 곳에게신 람벌신교사를 방문하였다. 람벌목사 내외는 교영목사의 뒤를 이어서 일본에 있는 우리교회를 위하여 또 교역자

지난三號, 三面教會 名古屋教會 記事中總經비 七百萬圓은 二百七十萬圓

△訂正

사진은 고 영목사의 (좌로부터) 본자 유장로 김전도사

시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기만에 대한 인간 심령의 감수성(感受性)이란 심히 크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 소수 독재자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다 최초의 그 이상 때문에 청담화된 것으로 느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수독재자들의 심의 속에 음지하고 있는 그 혼잡한 욕구에 관하여 여러가지로 의측 하여보는 일은 그다지 곤란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공산주의는 즉 우리가 보는대로 인류의 도덕적 인간 모순현을 무시하는 임시적 도덕적 회의주의의 정치제도로서 재산 정부 국적 또 인종적구별이 아주 없었던 이

인간성에 강한 정반대의 두 개념이 이차같이도 공동히 파열하고 무자비한 정치행위 또는 전제적인 정치정치를 조성(助成)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불온 간악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근본이론에 있어서는 서로장지 아니하다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여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필요의 한가지 이유는 즉 어떤 한개의 이상주의가 부패하게되면 그정치적위성은 아주 솔직하게 나오는 회의적 정치 부로그렐보다도 더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의하면 나치스는 그들의 몰상식한 자기숭배에 일하여 한 대육파 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노망에 있어서 실패를보

내 사랑하는 헤느리야
너는 요새도 입마라고 같이
흔들하여 잘 놀고 학교에 잘
다니느냐
아빠는 오늘날도 나가서 내
임무를 다하고 우사이 돌아와
서이편지를 쓴다.
나는 오늘날 우리 좋은 목사
가 더리고 온 한국 어린이들
보고 웃었다
감이란 그 사나이는 다이
는 열한살 메 나미와 같다.
아버지는 「대전」의 거리에서
모발정사를 하던 크리스찬이요
장로이었다고한다. 재작년에
온군대가 들어왔다가 우리
라군에게 쫓겨갈때에 아버지
아머니와 형은 잔혀가서 죽고
집은 불도히고 군방 가면
애 있는 고모의집에 가서 있
었다고 한다. 열마전에 고모도
죽고 어머니의 친척을 찾아
다시남쪽으로 갈어서 오는 길
인데 힘이없고 배가 고파서길
에 쓰러졌던것을 더러웠다고
한다.
처음에는 말도 잘 못하고
도모지 못지를 한것을 보고

부시듯 그렇게 희고 빛나는
웃음 입고 오십시오.
달 밝은 밤 있는 것 다아
잠들어 피피한 보름 밤에
오십시오..... 빛을 거느리
고 당신이 오시면 밝은 밤
은 영원히 물러간다. 하였으
니 어쩔지 모르지만 밝을
나는 푸른 달밤으로 보아
시롭니다. 푸른 달빛이 금시
에 활짝 안만한 다른 광명
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작업
속히 오십시오
오시마 하시었기에 나는 피
와 눈물에 오려 설은 사연
을 지니고 기다립니다.
친 잠미와 백합 꽃을 흔
들어 맑은오리니 반가워 눈
물 먹을고 맞았으려나 당신
은 눈같이 흰 웃을 입고
오십시오 눈 위에 활짝
살이 부시듯 그렇게 희고
빛나는 웃을 입고 오십시오

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학교가 아니라서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공부를 못하고 배를 곯고 울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웃에 불이 붙는 것을 어떻게 모는데 하겠나 그리고 우산군의 물이 점점 퍼져서 공산군에까지 오면 내이들도 공부할 뜻하고 집없는 아이가 모른다. 아빠는 이 무더운 겨울 꺼버리는 것이 내에게 팔려 주신 심부름 일에서 빠져도 있다. 허혈아 말 할 줄도 잘 안다.

저술인데 사육한 세상에 보배는 귀한 선물이야.

저자는 기독교자가 아니냐

교의 따뜻한 사랑을 위하여 보았다고 하면서 자료 좀 모아 보고픈 같은 형식으로 사회에 내놓은 것이다.

필자는 전란으로 많은 고아가 사랑의집에 살도록 보았다가 야기는 동북지방 센다이 시의 에 있는 세논이 기독교 육아원인데一九一七년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온갖 중상속에서 일五一五명의 교아를 길러냈다.

현장과 직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철학과 직관으로 대하고 믿는다.

윤 교개가 아니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성자들을 오솔에 이르케 한 것만으로도 바 되어 오늘에 귀국하이다. 창설자는 병들어 기 까지 밤낮 영양부족 흠을 있는 아들과 침식을 함 어머니와 같이 지녀야한다.

원아들중에는 이사업장에 일생 을 바친 야마다를 비롯하여 관장 교유계 실업계 진출한 사람들이 수다하다.

세상이 돌보지 않고 냉대하는 이런 사업에 활동하는 이들께 스사로 위되는 마크리 되고 믿는다.

— 田 榮 澤 —

아들은 종일비
가 옵니다.
지리하게 비가
오니 옛날에 한
창 생초를 하
면서 어떻게 비
가 오는날이면
몸시도 고국
생각이 나든 일
이 생가 나너다
이리하게도
외 일할 길으로 본 것
중치도 못한 이야기를
제논 속으로 혹은 옆으
고 느낀 점을 적어보림

에
우
대체 뭇장이 버려놓고
야단인데, 남나노소 대하생
사들 팔것없이 정성스럽게
강하고 고개할 숙이고는 큰
방울발 손들면서 돈을 던지고
가는자가 연속부절이고 뚱뚱거
리면서 소위 신루라고 줄을추
두군요.

문화도시라고 자랑하는 동경
에서 택시마다 사고방지(事故防
止)의 차원으로 신사의 수
호(부작) 표출 불인식하는
지 갑좌차호표가 나서 독일
이 되었다고 「요시다」 수상이
이세신공에 사람을 보아서 참
배를 했다는것을 보든지」 「와

電話二九六六

歸國하는처취嬢

국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할 수 없이 갑니다. 한국
여러분에게 작별인사의 말씀을